

르네 지라르의 사상과 개혁주의 문화관과 변증학

정 일 권

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 학부, 조직신학

1 서론

본고는 개혁주의 문화관과 변증학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문명기원론과 기독교 변증론을 통해서 신학 뿐 아니라, 인문학의 영역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논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후에 개혁주의 교육과의 관련성을 논의할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설립한 화란 자유대학교가 1985년 지라르에게 최초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지만, 그는 신학자는 아니다. 그는 인문학자로서 문화의 기원을 해독하고 또한 유대-기독교적 전통의 독특한 유일성을 주장한다. 그가 신학자가 아니기에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불만족스럽고 또한 비판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유럽 독일어권에서는 지라르가 기독교를 구했다고까지 한다.

* 논문투고일: 2013. 10. 6
 논문수정일: 2013. 12. 6
 게재확정일: 2013. 12. 21

개혁주의 변증학과 문화관의 관점에서 지라르의 문화이론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의미있는 이유는 그가 단지 성경과 신학에서 출발하거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인문학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지라르의 이론이 그 동안 인문학에서 스캔들이었던 이유는 그의 사상이 너무나 반우상주의적이고 우상파괴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의 이론은 반우상주의적 정신이 강한 칼빈주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인간 희생양들이 우상화되는 과정을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이론으로 해독하고 해명했다. 본고는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에 제한된 개혁주의 변증학과 문화관을 지라르의 이론을 통해서 일반 인문학의 공적인 광장의 영역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최근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위기로 등장한 새로운 무신론적 문화전쟁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하며, 종교다원주의적 도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지라르 이론의 빛으로 시도해 보는 개혁주의 변증학과 문화관 그리고 교육의 확장을 위해서 먼저 반틸의 전제주의적 기독교 변증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적 무신론의 도전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킨 것은 그 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성공회는 약 30년 후면 영국에서 기독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렇게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영국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많은 원인들 중 하나는 도킨스의 근본주의적 무신론 문화운동 때문일 것이다. 2장의 논의는 보다 자연과학적 지평에서 전개되는 변증학적 작업이다. 반틸의 전제주의적 기독교 변증론과 같은 성경적이고 신학내적인 변증작업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보다 더 넓은 인문학적 그리고 자연과학적 토론의 광장과 소통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변증하고자 진화론, 창조과학 등과 관련된 자연과학적 논의도 포함시켰다. 3장은 비교종교학적 지평에서 교육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독특성을 논의할 것이다. 불교는 붓다가 되고자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가 되고자 하기보다는,

그 분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성화를 목표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교육의 모델이 된다. 이 차이를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2 최근 기독교 철학과 변증학의 르네상스

2.1 선교적 무신론의 등장과 기독교 변증학

20세기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영미권 뿐 아니라, 유럽 대륙의 철학과 인문학에서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변증학의 르네상스가 오고 있다. 특히 21세기 초반부터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한 도킨스와 선교적 무신론의 등장으로 다시금 기독교 변증학이 다시금 중요하게 되었다.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45년 간 교수사역을 한 코넬리우스 반틸의 『변증학』(*The Defense of the Faith*)는 인간의 자율성에 내포된 공허함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위대함을 밝히고 있다. 변증학은 각양의 비기독교적 삶의 철학과 대결하는 기독교적 삶의 철학에 대한 변호이다. 반틸은 “전제주의”(Presuppositionalism) 변증학을 그의 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¹

우레가 없는 선교적 무신론의 공세에 맞서서 기독교 유신론을 변증하

1 성경이 증거 하는 창조자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세계관을 전제로 해야만 참된 가치판단, 해석, 올바른 지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인간의 자율성 및 자연인의 이성능력의 가치에 회의를 품는 것이며 자연신학적 태도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의 변증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제하고 시작된다. 이러한 전제는 그의 기독교적 실재론이나 인식론, 가치론에 있어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작용한다. 모든 존재는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그로부터 파생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식은 궁극적 존재인 하나님 자신의 온전한 성격과 지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게 된다.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 안에서 완전히 해석된 세계이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알고,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 없이는 참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참된 가치들 또한 가치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이다. 칼빈주의가 낳은 앨빈 플랜팅가 교수는 1980년 4월 5일자 타임(Time)지에 의하면 정통 개신교 진영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철학자'로 묘사된다. 그는 지난 30년간 미국 학계 안에서 기독교 철학의 부흥을 주도해 왔다. 또한 2004년과 2005년에는 기포드 강좌 (Gifford Lecture)를 맡아 종교와 과학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유대-기독교의 유신론적 믿음이 합리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탐구하고 논쟁했다.² 플랜팅가의 기독교 변증론은 분석철학적 지평에서 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도킨스의 선교적 무신론 문화운동으로 촉발된 '신에 대한 논쟁'(God-debate)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해서 유신론적 신앙의 합리성을 변호했다. 반틸의 전제주의적 기독교 변증학이 주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개혁주의적 계보의 변증학자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연과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광장에서 소통하고 변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유대-기독교적 가치와 우상의 황혼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또 다른 기독교 변증학의 대가 R.C.스프롤은 현대 무신론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 많이 논하기도 했다. 우상의 황혼이라는 제목은 니체의 저서에서 차용했지만, 그 의미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즉 전통적이고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우상들이 저물고 있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복음적 증언이 승리하고

2 그는 분석적 유신론자(analytic theist)로 알려져 있다. 그의 명성은 유럽의 독일어권에까지 미치고 있다. “신앙의 합리성에 대한 칼빈주의적 입장: 알빈 플랜팅가와 개혁주의 인식론”이라는 논문은 유럽 독일어권의 기독교 철학부에서도 논의 될 만큼 영향력이 크다. Winfried Löffler, “Eine Calvinistische Position zur Vernunftigkeit des Glaubens: Alvin Plantinga und die ‘Reformierte Erkenntnistheorie,’” in *Letztbegründungen und Gott*, ed. E. Runggaldier u. B. Schick (Berlin u.a.: de Gruyter 2011), 67-85를 보라.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적 계보에서 있는 한 세기 동안 후기기독교적 혹은 반기독교적 시대정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기독교 변증론을 이후에 소개하고자 한다. 지라르는 바로 다신론적, 범신론적 그리고 이교적 우상들의 황혼과 십자가의 승리를 논증하고 당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의 『우상의 황혼』은 ‘권력에의 의지’ 혹은 ‘모든 가치의 전도’를 위해 작성되어 있던 글들의 일부를 정리하여, 소책자의 형태로 정돈된 것이다. 『우상의 황혼』이라는 제목은 니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신들의 황혼’(Götterdämmerung)을 작곡한 바그너에 대한 적의가 서려 있는 제목이다. 『우상의 황혼』은 ‘모든 가치의 전도’, 특히 반기독교적 의미에서 망치를 들고서 진행하는 유대-기독교적 가치의 (유쾌한) 가치전복이라는 니체의 철학적 과제를 염두에 둔 작품이다.³

니체는 사실상 유대-기독교적 전통을 데카당스, 곧 부패한 전통으로 보고, 그리스 전통, 특히 그리스 비극 전통과 그 우상인 디오니소스적인 것들을 건강한 대안으로 보았다. 이렇게 유대-기독교 전통을 일종의 부패한 악과 바이러스로 보는 입장은 도킨스의 선교적인 무신론에서도 곧잘 등

3 ‘이 사람을 보라’에서 니체는 『우상의 황혼』의 표지에 등장하는 ‘우상’이라는 말이 “이제껏 진리라고 불러 왔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상의 황혼’은 “옛 진리가 종말로 다가 간다”를 의미하게 된다. 즉 니체는 사실상 유대-기독교적 옛 진리가 종말로 다가 간다는 의미에서 우상의 황혼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니체의 기획과는 정반대로 유대-기독교의 하나님님이 황혼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니체가 대안으로 선택한 그리스의 신 디오니소스를 비롯한 성경적 의미의 우상들과 신들이 종말로 다가 가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니체의 저서 부제인 ‘어떻게 망치를 가지고 철학하는지’는 의도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즉 중요한 망치질에 의한 유대-기독교 전통에 대한 철저한 파괴와 동시에 그 우상들에 대한 세련된 진단적인 절차를 진행시키고자 했다. 여기서는 형이상학 비판, 언어철학적 숙고, 예술이론적인 고찰들, 문화이론적 숙고들이 최고로 성숙된 최후의 모습으로 정식화하여 등장한다. 『우상의 황혼』은 분석과 진단의 대상들을 데카당스(decadence)와 연결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래서 형이상학과 철학에 대한 비판에서든, 도덕성에 대한 고찰에서든 예외 없이 그것들의 유대-기독교 전통의 데카당스적 성격을 밝히는 계보적 작업이 진행된다.

장한다. 이후에 기술하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자를 버리고 디오니소스를 새로운 우상으로 택함으로 소위 유쾌한 가치전복을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건강한 유럽문화의 갱신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잔인한 독일 나찌의 야만적 테러였다. 도킨스와 그 무리들이 비판하는 것도 종교이지만, 사실상 구체적으로는 바로 유일신론적 종교, 특히 유대-기독교 전통이다. 참된 나를 찾아가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현대판 새로운 그노시스로 모호하게 인식되고 있는 서구불교는 이 무신론적 종교비판에서 그다지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

2.3 르네 지라르: 신화의 수수께끼와 십자가의 승리

현대철학, 곧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철학, 후기구조주의 등이 니체와 하이데거의 계보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후기기독교적 혹은 반기독교적 흐름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학자가 르네 지라르이다.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화란 자유대학교가 최초로 1985년 르네 지라르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이후, 2005년 '불멸의 40인'으로 불리는 프랑스 지식인의 최고 명예인 아카데미 프랑세즈 종신회원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다. 2006년 독일 튀빙엔 개신교 신학부는 지라르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변증작업에 영예로운 상을 (Dr. Leopold-Lucas-Preis 2006) 수여했다. 이 시상식에서의 지라르 강의는 “복음서는 신화의 죽음이다”(Die Evangelien sind der Tod der Mythologie)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고, “학문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독일 튀빙엔에서 신학 부분 베스트셀러였던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4 르네 지라르 (René Noël Théophile Girard)는 1923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성탄절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의 본명에는 성탄절을 의미하는 노엘이 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혹은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았다는 의미의 Théophile 가 붙어 있기도 하다.

본다”의 독일어판에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변증”(Eine kritische Apologie des Christentums)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⁵ 전술한 바와 같이 네델란드 자유대학교가 최초로 1985년 지라르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이후 네델란드는 지라르 이론에 가장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⁶

2.4 위르겐 하버마스의 유대-기독교적 가치변호

최근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에서 발행하는 2013년 『폭력과 종교에 관한 콜로키움』 회보(The Bulletin of the Colloquium on Violence & Religion)를 보니 하버마스의 2012년 저작에서 지라르를 언급하고 있다.⁷ 세속화의 변증법과 후기세속적 사회(Dialektik der Säkularisierung und

5 십자가 사건은 어두운 상태에 있는 인류문명과 신화를 해독하는 해석학적 빛이며 열쇠이며 계시라고 세련되게 논증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적이고도 의도적으로 자주 성경에서 책 제목을 빌려오는 지라르는 이 책에서도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를 제목으로 사용하여 인문학적인 지평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한다. 이 책 2부의 제목은 신화의 수수께끼이며 3부의 제목은 십자가의 승리다

6 네델란드 르네 지라르 학회는(Girard Studiekring, dutch Girard society) 최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캄펜 신학교에서도 지라르 이론은 주로 기독교 변증학 분야에 많이 수용되고 있다고 한다. 화란 자유대학교의 파스칼 연구소는 2007년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의 국제적인 학제적인 “폭력과 종교에 관한 학술대회”를 (Colloquium On Violence & Religion) 개최했다. 최근 지라르는 2008년 스코틀랜드의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영미권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대학인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University of St. Andrews)에서 2008년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0년 이 대학에서 개최된 저명한 기포드 강좌 (Gifford Lecture)에서도 그의 이론은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리처드 도킨스 (Richard Dawkins)와 같은 “무신론자들의 승리주의”가 큰 목소리를 내는 시점에서 “가장 긴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라르의 이론”이라고 이 강좌에서는 소개되고 있다. 최근 2012년 3월 16일과 17일에 미국의 기독교 대학 휘튼대학의 기독교 응용윤리 센터 (Center for Applied Christian Ethics, Wheaton College)에서 르네 지라르의 최근 저작을 중심으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7 Jürgen Habermas, *Nachmetaphysisches Denken II: Aufsätze und Repliken* (Berlin: Suhrkamp, 2012).

postsäkulare Gesellschaft)⁸에 대해서 말하는 하버마스는 최근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하고, 신화와 제의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최근 저작에서 지라르를 언급하고 있다.⁹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유대-기독교 전통의 유산에 대해서 변호한다. 서구 문명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양심, 인권,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기초는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라고 말한다. 후기형이상학적 사고(nachmetaphysisches Denken)도 바로 이 원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기독교는 근대의 규범적 자기이해에 있어서 선구자 혹은 촉매제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와 연대적 공존, 자율적 삶의 영위와 해방, 개인적 양심도덕,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가 파생된 평등한 보편주의는 바로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의 직접적인 유산이다. 지금까지 이것을 대신할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후기국가적 성좌(the post-national constellation)라는 현재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이 유산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모든 것은 포스트모던적 잡담(Gerede)이다” 라고 하버마스는 말한다.¹⁰ 하버마스, 지젝, 바디유, 아감벤,

8 Jürgen Habermas & Joseph Ratzinger, *Dialektik der Säkularisierung. Über Vernunft und Religion* (Freiburg: Herder Verlag, 2005).

9 이 책에 대한 독일 일간지 디 짜이트(Die Zeit) 2012년 12월 서평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조직신학교수였고, 또한 최근까지 독일개신교협의회 회장이면서 주교였던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가 적고 있다. 그는 조직신학 분야 중에서도 기독교 사회윤리 분야 전문가다. 그에 의하면 하버마스는 신앙과 종교비판을 동시에 원하고 있다. 근대는 자기해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에 다시금 종교, 특히 기독교 신앙이 다시금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후버는 그 동안 독일 개신교회의 자기진부화(Selbstbanalisierung)와 자기세속화(Selbstsäkularisierung)의 위협에 대해서 경고해 왔다. 이 신문기사에서도 그는 “미지근한” 독일 개신교의 자기해체의 위협에 대해서도 바르게 언급하고 있다.

10 J. Habermas, “Ein Gespräch über Gott u. die Welt,” in ders., *Zeit der Übergänge* (Frankfurt: Suhrkamp Verlag, 2001), 174f. 유럽 68 학생문화혁명 세대와 함께 갔던 당시 프랑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하버마스는 일관되게 냉담했다. 근대는 미완의 기획이며, 우리는 포스트모던적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오랫동안 축적된 서구의 유대-기독교적 전통을 ‘해체’ (기존질서의 파괴와 새로운 건설)하려고 했던 당시 학생들의 문화혁명적 시도는 과도한

그리고 바티모까지도 최근 그 동안 지나치게 서구 기독교 문명의 죄악사의 이름으로 비난받았던 유대-기독교 전통을 복권시키고, 그 유산을 재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다.¹¹

3 도킨스의 망상과 만들어진 신들(gods delusion)¹²

3.1 The God Delusion과 도킨스의 망상과 혼동

도킨스의 *The God Delusion*은 『만들어진 신 -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2007, 김영사)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신이라는 망상(God Delusion)’이란 직설적 표현을 가진 원제에는 없는 부제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에서 볼 수 있듯이 -도킨스 자신의 책에서도 그러하지만- 한국에서는 종교, 특히 일신교, 그 중에서도 유대-기독교와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도킨스는 초자연적 창조주가 거의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어떤 인격적 신에 대한 신앙은 망상(Delusion)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무신론 근본주의’라 할 만큼 격렬한 어조로 종교, 특히 유일신론 교리의 허구성을 공격한다고 소개된다. 과학의 이름으로 종교와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다.¹³ 과학의 이

것이였다. 데리다의 해체시도에 대해서 지라르는 ‘축적’의 의미를 강조했다.

11 물론 유대-기독교적 유산과 함께 서구에는 그리스-로마적 유산도 흐르고 있다. 문명의 배꼽으로서 그리스와 로마의 유산을 함께 인정할 수 있다. 지라르의 표현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자는 디오니소스를 일으켜 세우신다. 하지만 문제는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 그리고 독일 나찌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인종청소를 하면서까지 유대-기독교적 전통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니체와 하이데거 철학의 포스트모던 철학적 복권시도에 불구하고, 그들 철학의 정치적 함의와 참여문제는 결코 침묵할 수 없는 주제다.

12 이 부분은 2013년 5월 24-25일 한동대학교에서 개최된 창조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도킨스의 망상과 만들어진 신들(gods delusion). 르네 지라르와 최근의 God-debate"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름으로 종교, 특히 유일신론과 유대-기독교 전통과의 문화전쟁에 동참할 것을 외치는 도킨스의 공격적이고 선교적 무신론은 정당한 자연과학의 범위를 넘어서 유사-종교적 과학주의에 근접하고 있다.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에 대해서 플란팅가는 “도킨스의 혼동. 극단으로 치닫는 자연주의”(The Dawkins Confusion. Naturalism ‘*ad absurdum*’)라는 제목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플란팅가는 도킨스가 유대-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지나치게 구약의 하나님을 폭력적인 신으로 묘사하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만들어진 신』은 거의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주로 철학과 신학을 다룬다고 플란팅가는 지적한다.¹⁴

타임지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미국의 주도적인 정통 프로테스탄트 철학자”(America’s leading orthodox Protestant philosopher of God)로 평가한 알빈 플란팅가(Alvin Plantinga)는 현대과학의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형이상학적 전제나 신념으로부터 중립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신론적 종교의 신이나 이 신과 같은 존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이것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사-종교”의 일종이다)에서는 본질적인 요소이며,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실제로 진화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므로 과학/종교(또는 과학/유사-종교) 간의 갈

13 초자연적 지성이 있다는 신 가설에서 신이 만들었다는 태초 우주까지, 창조론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도킨스는 자연선택을 근거로 한 반박 이론을 제시하며 창조론의 허울과 실상을 예리하게 밝혀낸다고 한다. 이런 논증들은 잘못된 믿음이 주는 환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신은 착각이다. 신의 존재를 의심하라고 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이 책을 소개한다. 『만들어진 신』은 종교를 비판하지만, 사실상 주된 비판대상은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와 같은 유일신론이다. 도킨스 자신이 말하듯이 특히 9.11테러 이후 그는 과격화되어서 유일신론을 주된 공격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14 Alvin Plantinga, “The Dawkins Confusion. Naturalism ‘*ad absurdum*,’” *Christianity Today* (March/April 2007).

등은 정당하지만 그것은 자연주의와 과학의 같든지 유신론적 종교와 과학의 같든지 아니라고 그는 주장한다. 자연주의는, 유신론적 종교의 신이나 이와 같은 존재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으로, 종교가 지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유사-종교”라 할 수 있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지닌 본질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실제로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진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¹⁵

플란팅가는 이러한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종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 중 적어도 어떤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이 세계관은 “일종의 신화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우리 자신에 대한 해석 방식을 제공한다. 즉, 자연주의는, 깊은 종교적 차원에서, 우리의 기원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한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우주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떤 것인지, 죽음 후에 삶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 이 세계관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유사-종교’이다”라고 주장한다.¹⁶ 다윈주의에 연루되어 있는 임의성이 그 자체로 진화의 과정은 “신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플란팅가는 본다. 인간이 임의적인 유전적 변이 가운데서 작동하는 자연선택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사실, 이것이 곧 사실이라면, 그것이 인간이 신에 의해 설계된 존재이고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주장과 전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윈주의는 “신의 주재(guide), 신의 조화로운 연출과 진화의 전체 과정에의 개입”이라는 요인과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다고 플란팅가는 주장한다. 실제로, 이러한

15 Alvin Plantinga, “Science and Religion: where the conflict really lies,” 박제철·김동규 역, “과학과 종교: 갈등의 지점은 어디인가,” 『철학논집』 제19집 (2009.10): 281.

16 Plantinga, “과학과 종교: 갈등의 지점은 어디인가,” 299.

생각은 신이 자연선택을 통해 선별한 임의적인 유전적 변이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과도 양립할 수 있다. 인류와 여타의 살아있는 존재들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진화가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이론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해석”을 과학 이론 자체와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⁷

도킨스의 “혼동”을 지적한 플라팅가처럼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신학자 맥그라스(Alister McGrath)는 그의 책 『도킨스의 망상? 무신론 근본주의와 신에 대한 부정』(*The Dawkins Delusion? Atheist fundamentalism and the denial of the divine*)에서 (유대-기독교 전통의) 인격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망상으로 보는 도킨스의 망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¹⁸ 도킨스는 이성의 적들로서 서구에 다시 돌아온 신들, 각종 에소테리즘, 뉴에이지적인 서구불교 등도 비판적으로 논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유일신론, 특히 유대-기독교의 초자연적이고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망상으로 보거나, 그에 대한 신앙을 해로운 망상으로 보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교수 존 C. 레녹스(John Lennox)과 진행된 “과학은 하나님을 매장했는가?”라는 제목의 논쟁에서는 도킨스는 비록 자기 자신은 수용하지 않지만, 일종의 이신론적 신, 일종의 물리학자의 신, 물리학의 법칙들을 고안한 어떤 신 그리고 수학자로서의 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대체적으로 유대-기독교적 세계관의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병적이고 해로운 망상으로 치부하다가, 어느 정도 이신론적 의미에서의 인격적 창조주의 가능성에 대해서 존중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 것이다.

17 Plantinga, “과학과 종교: 갈등의 지점은 어디인가,” 286.

18 맥그라스는 성경의 하나님을 폭력적이고 포악한 ‘살육자’로 묘사한 도킨스의 주장은 구약시대의 상황과 이스라엘 역사,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깊이있게 연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구절, 특정상황만 놓고서 판단하는 유아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3.2 르네 지라르와 God-debate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은 이후 여러 차원의 신에 대한 논쟁 (God-debate)를 촉발했다. 이후로는 인문학의 다원으로 평가되면서도 유대-기독교 전통을 재변증하는 지라르의 문화기원론의 빛으로 최근에 촉발된 신에 대한 논쟁을 진전시키고자 한다. 생물학적인 발전과 전이과정을 설명하는 진화 메커니즘이 생명의 기원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진화 메커니즘이 초자연적, 지성적, 인격적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망상이라고까지 증명하지는 못한다. 지라르에 의하면 희생양 메커니즘이 신들에 대한 망상(gods delusion)을 만들어낸다. 유대-기독교 전통은 이 만들어진 신들에 대한 망상과 환상에 대한 계몽으로, 그 신들에 대한 망상을 생산하는 메커니즘을 폭로한다. 2010년의 저명한 기포드 강좌 “성스러움과 인간”(The Sacred and the Human)에서는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의 승리주의”가 큰 목소리를 내는 시점에서 “가장 긴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라르의 이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¹⁹ 그러므로 무신론 근본주의적인 종교비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주된 공격 대상으로서 유대-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문화전쟁을 선포한 도킨스 이후의 신에 대한 논쟁에서 지라르가 해독한 성스러움(*le sacré*), 신화의 수수께끼와 십자가의 승리 등의 논의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²⁰

미메시스(모방)를 키워드로 하는 지라르의 새로운 거대담론 미메시스 이론(Mimetic Theory)은 도킨스의 밈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밈이란 도

19 <http://www.st-andrews.ac.uk/gifford/2010/the-sacred-and-the-human/>

20 정일권, “사실의 망각된 목소리: 르네 지라르의 기독교 변증론 - 해체주의 철학,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와의 이론논쟁 중심으로,” 『기독교 철학』 13호 (2011년 겨울호): 141-72 을 보라.

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문화의 진화를 설명할 때 처음 등장한 용어로서 한 사람이나 집단에게서 다른 지성으로 생각 혹은 믿음이 전달될 때 전달되는 모방가능한 사회적 단위를 총칭한다. 최근 신경심리학에서 대두된 거울신경세포(mirror neuron)를 설명하는데도 mim의 개념이 필요하다고도 하지만, 이 거울신경세포의 발견은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을 지지하고 확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모방, 거울 뉴런 그리고 모방적 욕망: 르네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과 모방에 관한 경험적 연구 사이의 일치”에 대한 연구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²¹ 다윈의 『종의 기원』을 염두에 둔 자신의 저서 『문화의 기원』(『Les Origines de la Culture』)에서 - 이 책은 영어본으로는 『진화와 회심. 문화의 기원에 대한 대화들』(『Evolution and Conversion. Dialogues on the Origins of Culture』)로 최근 번역되었다 -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와 같은 가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없다. 사실 이 가설은 게임 이론에 의지하여, 동물적 이타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도킨스의 이론을 문화영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문화적 동일성인 ‘mim’이라는 더 문제가 많은 개념을 만들어내야 했다. 지라르는 도킨스는 문화의 출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동물과 인간 사이에 근본적인 단절을 상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²²

인류문화의 기원을 야심차게 설명하고자 하는 대담한 가설로서의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Mimetic Theory)은 인문학의 빅뱅이론으로도 볼 수 있다. 문학과 심리학, 신화학, 종교학, 인류학을 모두 건드리는 그는 인

21 Scott R. Garrels, “Imitation, Mirror Neurons, and Mimetic Desire: Convergence Between the Mimetic Theory of René Girard and Empirical Research on Imitation,” *Contagion: Journal of Violence, Mimesis, and Culture*, 12-13 (2005-2006): 47-86

22 René Girard, *Les Origines de la culture*, 김진식 역, 『문화의 기원』 (서울: 기파랑, 2006), 152.

류문화의 기원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기나긴 논증’을 펼쳤다. 문화의 기원에 대한 큰 질문(Big question)에 대해서 기나긴 논증으로 인류문명에 대한 새로운 거대담론(Grand theory)을 전개하지만, 그의 이론의 3부는 기독교에 대한 변증작업이다.²³ 『문화의 기원』의 3장의 제목은 기독교라는 스캔들이다.

『문화의 기원』(*Les Origines de la Culture*)이 출판된 다음 해인 2005년 지라르는 ‘불멸의 40인’으로도 불리는 프랑스학술원(아카데미 프랑세즈) 정회원이 되었다. 지라르는 인문학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인문학계의 다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는 범신론이나 다신론은 끊임없이 신들을 생산하는 장치들이라고 본다. 지라르에 의하면 유대-기독교 전통의 유일신론의 신은 희생양 메커니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에 반해 다신교는 수많은 희생양의 초석에서 발생한다. 고대사회에서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마다 새로운 신이 발생되고 제작된다. 그러나 유대교는 이런 식으로 신을 생산하는 장치를 처음부터 엄격히 거부했다. 유대교에서 신은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고, 희생양도 더 이상 신격화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이른바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지라르는 말한다.²⁴ 희생양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인지불능(méconnaissance)이다.²⁵ “어떤 사고시스템도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없다.”²⁶ 신화는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구조화되어 있기에 그 메커니즘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지라르는 “텍스트 자체를 구조화하고 있는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

23 정일권,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기독교 변증론,” 『조직신학연구』 제14호 (2011. 봄/여름호): 107-125를 보라.

24 Girard, 『문화의 기원』, 112.

25 René Girard, *Das Heilige und die Gewalt* (Zürich: Benzinger, 1987), 154, 37, 175f.

26 René Girard, *Der Sündenbock* (Zürich: Benzinger, 1988), 294.

은 없다”고 말하지만,²⁷ 복음서에서는 이 세상설립 이래 은폐되어온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는 빛과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²⁸

도킨스가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하고 폭력적인 신으로 장황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지라르는 유대-기독교의 하나님을 변호한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신들은 이교의 신들이다. “신들은 잔인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라르가 기독교를 구했다”라고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 (*Die Welt*)는 당대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 지라르를 소개한다.²⁹ 문화의 진화메커니즘인 희생양 메커니즘으로서 문화의 기원과 발전을 해독하지만, 그렇다고 무신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한다. 그는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제 연구결과가 나를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실존적 신앙고백을 하면서, 신비로운 회심의 체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저의 연구가 저를 기독교로 개종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뒤섞여 있습니다”라고 그는 신앙고백 한다.³⁰

다윈처럼 지라르 역시 ‘기원’에 천착하면서 모방욕망과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두 개의 가설을 가지고 40년 전부터 인문학계를 전복해 왔다. 그러나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의 3번째 기둥은 기독교라는 스캔들에 대한 변증이다. 그는 창조과학 운동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전 미국사

27 René Girard, *Hiob – ein Weg aus der Gewalt* (Zürich: Benziger, 1990), 46.

28 희생양 메커니즘에 대한 인지불능(méconnaissance) 때문에 동료인간으로서 희생된 이후 신격화된 이교적 신들에 대한 환상과 망상(gods delusion), 곧 성스러운 오해가 발생한다. 유대-기독교 전통은 다신론적인 신들에 대한 환상과 성스러운 오해를 해체하고 탈신성화한다는 점에서 무신론적 종교비판과 계몽운동과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리스-로마 문화의 다신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고 비난받기도 했다.

29 Karsten Laudien, “Die Götter sind grausam. Aber Gott ist gut: René Girard rettet das Christentum,” *Die Welt*, 2002.09.28일자.

30 Girard, 『문화의 기원』, 60.

회에서 창조과학자들이 희생양이 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프랑스 르몽드 지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기독교 변증학자” 지라르는 도킨스와 같은 몇몇 다윈주의자들이 무신론적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기에 이것이 사물들에 대한 나의 독법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다윈의 사상이 무신론으로 이끈다는 견해는 부적절하다고(unsound) 생각한다”라고 지라르는 말한다.³¹ 도킨스의 근본주의적 무신론은 과학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일종의 유사-종교적인 자연주의, 과학주의, 형이상학, 신학 그리고 나아가서 신화의 영역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플란팅가는 유신론적 신앙에 의하면, 신은 살아있는 세계를 창조했다. 그렇지만 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히 진화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조사역을 수행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진화의 과정이라는 기획을 통해, 신은 자신이 의도한 피조물이 생겨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진화와 다윈주의가 어떤 관할과 주재 아래 있지 않다(unguided)는 주장이라고 그는 주장한다.³² 그러면서 프린스턴 대학의 저명한 신학자 찰스 핫지(Charles Hodge)는 식물과 동물의 설계에 대해 다음의 이야기를 언급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지으셨다면, 설계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한, 그 지으심이 즉각적인 것이건,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건, 그가 만드신 방식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³³ 플란팅가의 지적대로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명을 지닌 피조물들이 나타나는 모습과는 반대로 이 피조물들이 계획된 존재가 아

31 Interview with Christian anthropologist René Girard. *Le Monde des livres*, 5 Oct., 2009 ('Books which changed the world', 1/20).

32 Plantinga, “과학과 종교: 갈등의 지점은 어디인가,” 282-3.

33 Charles Hodge, *What is Darwinism* (New York: Charles Scribner, 1871) (Planting, “과학과 종교: 갈등의 지점은 어디인가,” 283, 각주1을 보라).

나라는 것을 진화가 증명하고 있다는 주장이 과학적 이론의 결과 이거나 그 결과의 일부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사고의 부산물”일 뿐이다.³⁴

플란팅가가 언급하고 지지하는 오스트리아의 크리스토프 쉰본 추기경(Christoph Schönborn)도 위의 내용과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플란팅가에 의하면, 자연주의와 진화론 모두 신의 계획에 대한 부정을 함축한다. 하지만 진화론이 그 자체로 이러한 함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함의는 진화과학이 그러한 부정을 담고 있는 자연주의와 결합될 때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 다윈주의 자체는 진화의 과정이 어떤 계획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담지하거나 함축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실제로 유신론적 신앙이 제시하는 (지적) 설계논증을 지지해주는 근거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반문한다.³⁵

또한 확대된 형태의 최근의 신에 대한 논쟁에서(God debate) 기독교의 스캔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특수성의 스캔들에 대해서 토론되곤 한다. 즉 곧잘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와 같은 소위 이교의 신들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별 차이가 없다는 내용들이 신에 대한 최근의 논쟁에서 가끔씩 등장한다. 또한 기독교가 인간제사의 종교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라르의 기독교의 스캔들에 대한 변증을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신화는 거짓말이라고 지라르는 단언한다. 빛인 복음서는 아직도 어두운 신화를 ‘해독한다’.³⁶ “복음서는 신화적인가?”라는 논문에서 지라르는 “세계의 신화들

34 Plantinga, “과학과 종교: 갈등의 지점은 어디인가,” 286.

35 Plantinga, “과학과 종교: 갈등의 지점은 어디인가,” 287-8.

36 René Girard, *Celui par qui le scandale arrive*, 김진식 역, 『그를 통하여 스캔들이 왔다』(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7), 85.

이 복음서를 해석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복음서가 신화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말한다.³⁷ 옛날부터 이교도 옹호자들은 복음서의 장면과 신화의 장면들의 ‘유사성’을 내세워 “기독교의 특이성”을 부정해 왔다. 하고 있다. 어떤 신들이나 디오니소스, 오시리스, 아도니스와 같은 반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연상케 하는 집단 형벌을 받았다. 이런 폭력은 사회의 무질서가 절정에 달하거나 질서 자체가 아예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데, 그 뒤에는 일종의 ‘부활’인 그 희생양의 당당한 재등장이 이어진다. 이 희생양은 다시 질서를 세우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신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신격체로 격상된다.³⁸ 지라르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신화와 그 희생양 메커니즘을 밝혀주는 계몽”이다.³⁹ 신화가 집단폭력의 “수동적인 반영”이라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희생양과 모방적이고 폭력적인 균형을 만들어내는 집단 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폭로”다.⁴⁰

God-debate에서 특히 디오니소스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유대-기독교의 하나님을 살해하고, 신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새로운 신으로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를 택한 니체와 그 계보에서 있는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련성 때문인 것 같다. “디오니소스 대(對) 십자가에 달리신 자”라는 논문에서 지라르는 니체가 폭력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⁴¹ 니체는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디오

37 René Girard, “Are the Gospels Mythical?,” *First Things* (April 1996).

38 Girard, 『그를 통하여 스캔들이 왔다』, 63.

39 René Girard hat die Bibel literaturwissenschaftlich gelesen. Das erstaunliche Ergebnis: Das Christentum ist die Aufklärung der Mythologie und ihrer Sündenbock-Mechanik (*Die Presse* 22.11.2002).

40 Girard, 『그를 통하여 스캔들이 왔다』, 68.

41 René Girard, “Nietzsche versus the Crucified,” *The Girard Reader*, ed. James G. Williams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6), 246.

니소스 옆에 있고 싶어 했다고 지라르는 주장한다. 니체는 그리스도에 반해서 디오니소스를 택하는 틀린 선택을 하였다고 지라르는 본다.⁴² 디오니소스는 폭력의 신이며 잔인한 희생제의의 신이다. 그리스 비극은 축제를 상호적 폭력이라는 폭력의 기원으로 끌고 간다. 처음에는 평화롭던 디오니소스적인 무차별이 곧 폭력적인 무차별로 변하게 된다. 여신도들은 모두 살해에 가담한다.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는다. 미친 듯이 날뛰는 군중은 맨손으로 희생제물을 산채로 갈갈이 찢는다 (diaspragmos). 디오니소스가 포도나무나 포도주의 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서운 취기와 살인적 광기의 신이라는 그의 본래의 의미를 부드럽게 한 것이다.⁴³

9.11테러가 자신의 입장을 과격화시켰다고 도킨스는 말한다. 결국 폭력과 종교의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의 문화전쟁으로 확산되는 God-debate를 이해할 수 있다. 9.11테러 이전에 1990년에 국제적이고 학제적으로 조직된 - 저자도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 세계 지라르 학회인 “폭력과 종교에 관한 학술대회”(Colloquium on Violence and Religion)가 설립되었지만, 9.11테러 이후 국제 테러리즘의 문제, 폭력과 종교의 문제 등 지라르의 이론은 가장 현실성 있는 갈등이론과 평화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므로 폭력의 문제로 인해 종교 자체, 특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기독교적 유일신론을 새로운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3.3 만들어진 신들(gods delusion)

42 René Girard, *Wenn all das beginnt. Ein Gespräch mit Michel Treguer*. Aus dem Französischen von Pascale Veldboer (Münster-Hamburg-London: Thaur, 1997), 145.

43 니체 철학과 포스트모더니즘 철학과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저자의 논문을 참고하라. 정일권, “새로운 희생위기로서의 현대사회 - 르네 지라르의 현대사회에 대한 분석,” 『철학연구』 125집 (2013.2월호): 332-3.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킨스의 무신론적 근본주의는 종교 일반을 공격하지만, 사실상 그리고 대부분은 유대-기독교적 유일신론을 비판한다. 예를 들어 최근 God-debate에 참여하는 피터 싱어(Peter Singer)도 (서구)불교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다. 이후로는 『불교평론』에 소개된 글들을 중심으로 불교계가 바라보는 창조론과 도킨스의 무신론 등의 문제를 논할려고 한다. 불자들도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 “기독교를 맹공격하고 있다”고 본다. 우희중 교수는 창조과학은 “종교를 굳이 과학의 언어로” 풀어가려고 한다면서, 창조과학과 같은 입장은 “지극히 제한적인 합리적 이성에 대한 맹신을 통해 스스로를 제한하고 자본주의의 폭력 체제를 모방하는 것이다”고 비판한다. “과학의 탈신화화와 종교의 탈과학화”를 내세우면서 우희중 교수는 과학적 이성이 강조된 이 시대에 통합적인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디오니소스적인 감성의 합리성”과 더불어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영적 합리성이라고 주장한다.⁴⁴

이렇게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니체 이후로 십자가에 달리신 자에 대한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어떤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때로는 유희적, 감성적, 미학적인 것으로 새롭게 오해되고 있지만, 지라르는 본래적인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희생제의적인 차원에서 그 집단성과 동물성 속에서 분석한다. 과잉성행위, 동성애, 식인풍습 같은 행동들은 모두 디오니소스 제의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라르는 지적한다. 이런 사실은 디오니소스는 실제로 동물의 전형적인 모습과 충동이 나오는 사회적 위기의 이런 특징적인 행동을 일컫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⁴⁵ 종교가 탈과학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과학과 종교는 서

44 우희중, “(세미나중계)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과학의 탈신화화와 종교의 탈과학화,” 『불교평론』 53호 (2013년 3월).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9>

로 대화를 해야 한다. 도킨스가 비판하듯이 종교가 ‘이성의 적들’이 되어야 하는가? 유대-기독교적 세계관이 현대 자연과학의 산파요 모태였다. 불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과학의 동맹자”였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으로 충만한 문명 속에서 기독교 과학은 태동했다. 기독교화된 유럽이 근대 자연과학의 출생지였지, 결코 다른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다.⁴⁶ 오히려 탈신화화되어야 하는 것은 불교가 친화적인 것으로 보는 그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다. 일견 감성적이고 유희적인 것으로 보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해체해 보면 그 곳에는 도킨스도 비판하는 폭력적 야수와 같은 죽이는 인간(homo necans)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창조주의와 진화론의 논쟁에 비추어 본 불자의 과학관 - 다윈의 진화론 150주년에 부쳐”라는 논문에서 정윤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⁴⁷ 불자의 과학관 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최근에 증가된 불교학자들과 불자 과학자들에 의한 ‘불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몇가지 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기저에는 많은 경우 공통적으로 ‘불교는 과학과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 내지는 ‘불교는 과학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증명이 되거나 적어도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전제될 것이 아니다.” 자주 언급되는 아인슈타인과 토인비의 인용에 대해서도 이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그것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감’으로 말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유대—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⁴⁸

45 Girard, 『문화의 기원』, 170.

46 Nancy R. Peardey & Charles B. Thaxton, *The Soul of Science: Christian Faith and Natural Philosophy*, 이신열 역, 『과학의 영혼: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과학 이야기』 (서울: SFC, 2009), 24.

47 「불교평론」 40호, 2009년.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873>

정윤선 교수는 불교도 믿음의 대상인 종교인 이상 초월적인 그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한다.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그중 하나이다. 범인(凡人)들은 그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특수경험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편화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다. 윤희사상은 말할 것도 없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우주관은 또 어떠한가라고 지적한다. 불교와 과학의 ‘구조적’ 유사성을 밝히는 일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단 “불교가 과학적이다”라는 말은 불필요한 주장이라고 말한다. 즉 다른 학자보다는 불교가 물려받은 전근대적이고 신화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자기반성적인 것 같다. 정윤선 교수는 적어도 소위 프로테스탄트 불교(Protestant Buddhism)가 말하는 과학적 불교라는 논증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듯하다. 유대-기독교 전통과는 달리 불교전통은 자연과학적 합리성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과학적 불교를 화두라하는 많은 담론들은 사실상 그 기반이 약한 서구 기독교 전통에 대한 모방욕망의 산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저자는 지라르의 모방욕망이론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불교의 모방욕망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⁴⁹ 불교의 공(公)을 현대 물리학적 법칙과 무리하게 비교하는 것은 마치 성경 전도서에 등장하는 구절, “헛

48 “불교가 과학적이다”라는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불교와 과학을 비교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인드라마의 개념이다. 인드라마는 자연법칙의 인과관계와 비교되고, 인터넷상의 사이버스페이스와 비교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초끈이론’의 멤브레인 개념과도 비교가 된다. 하나도 틀린 것은 없다. 그러나 맞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인드라마와 비교되는 실체들은 범주가 달라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정윤선 교수는 바르게 지적한다. 나아가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 우주가 창조되었는가 여부는 아직 과학이 답을 못 준다. 어떤 과학자도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이다. ‘무신론자 캠페인 버스’에도 ‘There is probably no God(아마도 신은 없다)’라고 쓰여 있다. 100%는 아니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49 Ilkwaen Chung, *Paradoxie der weltgestaltenden Weltensagung im Buddhismus. Ein Zugang aus der Sicht der mimetischen Theorie René Girards*, Beiträge zur mimetischen Theorie 28 (Münster, Germany: Lit Verlag, 2010), 109.

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구절을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불확정성의 원리와 유사 학문적으로 비교하는 것만큼이나 헛된 시도라고 자신의 “과학적 불교에 대한 비판적 성찰”를 논의에서 어느 불교학자는 바르게 지적하고 있다.⁵⁰

정윤선 교수는 나아가 “불교에는 ‘6,000년 지구 역사’ 같은 ‘경술’ 한 주장은 없다. 부처님의 판정승이다. 그러나 그런 사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틀린’ 창조론을 ‘맞게’ 설명해 보려는 신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에서 20세기 과학이 나올 수 있었음을, 사실 종교와는 상관이 없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인드라마임을 상기하자”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저자는 르네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의 빛으로 일견 판정승을 했다는 그 붓다(들)이 신화적 희생양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gods delusion), 곧 은폐된 희생양(들)이라고 논증하였고, 이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4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 Christi)와 기독교 교육

4.1 기독교의 성화와 불교의 성불의 차이

정윤선 교수의 말처럼 불교에서는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고, 또 불교의 목표는 붓다가 되는 것, 곧 성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번의 영원한 자기희생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종식시켰지만, 보살들과 붓다들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생산된다. 성불하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붓다가 되는 것이 불교의 목표이며, 불교의 요기적 명상의 최종목표

50 Winston L. King, *A Thousand Lives Away. Buddhism in Contemporary Burma*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1964), 145.

도 붓다들을 생산하는 것이다. 범인(凡人)들은 그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특수경험”속에서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은폐되어 있다고 본다. 붓다들은 만들어진 신이다(gods delusion). 지라르 이론으로 보자면 불교에는 비록 약화되긴 하였어도 구조적으로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이 불교문화의 (진화)메커니즘에 대한 성스러운 오해, 환상, 혹은 인지불능이 존재한다고 본다. 예수보살론과 종교다원주의 문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붓다들의 문제를 지라르의 문화기원론의 관점에서 다시금 읽어볼 수 있다.⁵¹

『붓다와 희생양. 르네 지라르와 불교문화의 기원』(서울: SFC 출판부, 2013)에서 붓다가 은폐된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했다.⁵² 이미 불교계 내에서도 (희생양들로서의) 붓다들의 ‘깨달음의 이상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으로 인해 촉발된 신에 대한 논쟁(God debate)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이해해 온 만들어진 신들, 곧 우상들에 대한 환상, 기만, 그리고 성스러운 오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주적이고 지성적인 창조주에 대한 지적인 논쟁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일 것이다. 불교의 목표인 붓다가 되는 것, 곧 성불은 기독교의 성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은폐된 희생양으로서의 붓다들은 모방하기에는 위험하고도 매우 예외적인 존재다. 파계를 최고의 단계로 보는 디오니소스적인 붓다들의 범죄행위들이 재가신자들의 교육과 모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불교지식인들은 알고 있다. 명상자세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붓다들의 사리는 마녀들의 화형 이후에 나오는 유물(마스코트)처럼

51 정일권,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넘어서: 기독교와 불교 대화신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개혁신학』 제37권 (2013): 117-151을 보라.

52 정일권, 『붓다와 희생양. 르네 지라르와 불교문화의 기원』(서울: SFC 출판부, 2013).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 된다. 이미 불교학자들은 ‘깨달음의 이상화’(idolization of enlightenment)에 대해서 논의했다.⁵³ 깨달음을 얻었다는 선승들은 ‘미리화’(mummification)된다. 붓다들의 깨달음의 심리학은 이후 곧바로 사리승배, 미라승배 등으로 이상화되어 버린다. 폭력적으로 성스러운 존재 붓다들의 깨달음의 이상화의 문제다. 지상의 신들로서의 붓다들의 이상 숭배적 신성화 과정을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 속에서 해독해 내었다. 붓다들의 깨달음은 포스트모던적 의미에서의 해방적 해체가 아니라, 전근대적 의미에서 이상화되었다.

5 결론: 소통과 변증

개혁주의 문화관과 변증론과 지라르의 문화기원론과 기독교 변증론 그리고 모방과 교육에 대한 사상 사이의 비교는 인문학과의 소통과 변증을 위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지라르의 야심찬 이론을 통해서 기존의 개혁주의 변증학과 문화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인문학과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또한 보다 설득력있고 세련되게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게 되었다. 지라르의 문명기원론을 통해서 비기독교적 문화를 너무 쉽게 악마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문화이론적으로 내적인 메커니즘과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지라르가 말하는 십자가의 인류학과 십자가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문화 속에는 일반은총적인 진리의 조각이나 칼빈이 말한 종교의 씨앗 뿐 아니라, 카인적이고 이상숭배적이고 또한 악마적인 요소도 있다. 지라르의 이론을 통해서 비교종교학적으로 왜 기독교가

53 Robert H. Sharf, “The Idolization of Enlightenment: On the Mummification of Ch’an Masters in Medieval China,” *History of Religions* 32/1 (1992): 1-31.

교육의 종교라 불리게 되었는데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깨달음의 종교라는 불교의 붓다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육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라르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1960년대의 사신신학, 세속화 신학, 후기기독교적 혹은 탈기독교적 포스트모더니즘의 황혼 이후의 최근의 기독교 사상의 르네상스를 소개했다. 문명 담론(civilizational discourse)적으로 논의할 때 태초로부터 은폐되어왔고 불교와 같은 고등종교에도 부분적으로 은폐된 채 작동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묵시적으로 고발하고 폭로하는 마지막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모방의 대상이 된다. 기독교 교육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방으로 요약될 수 있다. 니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자에 대한 모방과 교육으로 이룩된 2000년 전통의 유럽도덕에 불만을 느껴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를 교육의 대안적 대상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니체의 철학적 백년의 유산에는 야만적인 폭력과 파시즘의 과오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자를 교육적 모방의 대상으로 삼은 유럽문화는 점차적으로 야만적 단계에서 보다 교양있고 성숙한 신사적이고 합리적이며 또한 계몽된 문화로 상승했다.

아시아의 붓다들도 교육적 모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기복적 숭배의 대상이었다. 서구불교적 오리엔탈리즘에 대해해서 슬라보예 지젝은 막스 베버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 했다. 『붓다와 희생양』에서도 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적 불교연구가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했다. 현대적 합리화의 과정이 왜 서구 기독교적 전통, 특히 칼빈주의 전통에서 발생했는가? 베버는 불교는 출가불교의 붓다들의 제의적 계율에만 집중한 나머지, 보다 재가신자들의 삶을 보다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볼 수 있는 마을과 도시의 중심에 서서 평신도들의 삶까지 보다 합리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불교문화의 경우 재가신자들의 공동체적 삶의 영역은 거의 자율적

으로 방치했다. 아시아의 출가승들은 기독교 전통의 목자들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창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불교는 본래 출가불교였고, 재가불교는 불교가 아니었다. 옥스퍼드 대학의 불교학 교수 콰브리치 교수의 지적처럼, 불교는 본래 순전히 붓다들의 구원론이었고, 공동체적 종교가 아니었다. 불교에는 본래 결혼식과는 관련이 전혀 없었다. 오직 죽음과 관계하는 장례식 불교가 전통적 아시아의 불교였다. 막스 베버의 분석에 의하면, 불교의 경우 재가신자들의 삶의 합리화 과정이 발생하지 못했다. 재가신자들의 신앙은 출가승들에 대한 “우상숭배”(Idolatrie)와 “성자숭배”(Hagiolatrie)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⁵⁴ 희생양으로서의 붓다들의 깨달음은 그들의 죽음 이후 즉시 우상화되었다.

지금까지 지라르의 기독교 변증론과 문화기원론을 통해서 기존의 개혁주의 변증학과 문화관을 좀 더 넓은 인문학적 광장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자 했다. 기존의 개혁주의 문화관은 일반은총론, 문화명령 등 성경적이고 신학적 영역에 제한된 면이 있어서, 일반 인문학의 영역에서 설득력 있게 논의되거나 제시되지는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스스로 신학자들을 도와서 기독교 정통주의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라고 밝히는 지라르의 문화기원론과 기독교 변증론은 개혁주의 변증학과 문화관을 일반 인문학의 영역에서도 세련되게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왜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인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지라르의 이론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이나 인도의 신들이나 불교의 붓다들을 비롯한 비기독교적 신들은 교육의 모델이 되기가 힘들다. 그들은 대부분 교육학적 모델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본받기에는 위험한 안티모델, 곧 은폐된 희

54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II, Hinduismus und Buddhismus*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66), 277.

생양들이다.

지라르는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라, 일반 인문학자다. 인문학의 하얀 십자가로도 불리는 지라르의 기독교 변증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화이론과 문명담론(civilizational discourse)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승리일 것이다. 그의 기독교 변증론의 방법론적인 특징은 기독교 신앙이나 신학적 전제 없이 일반 인문학의 지평에서 유대-기독교적 스토리텔링의 독특성과 십자가의 역설과 승리를 가장 설득력 있고 세련되게 논증한다는 것이다. 일반 인문학자들은 인문학계의 중심에서 있는 지라르의 주장이 불편해도 결코 쉽게 무시할 수 없다.

니체와 도킨스의 무신론적 도전에 대해서 플라팅가가 분석철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 유신론의 합리성을 변호했다면, 지라르는 보다 문화철학적인 관점에서의 변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라르의 기독교 변증은 자신의 표현대로 인류학적인 지평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니체, 하이데거, 레비-스트로스, 프로이트, 헤겔과 같은 서구 일반 인문학의 거장들과 논쟁하면서 또한 그들의 반열에서 유대-기독교적 전통을 변호하는 지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정일권.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기독교 변증론.” 『조직신학연구』 14 (2011. 봄, 여름호): 107-125
- _____. 『붓다와 희생양: 르네 지라르와 불교문화의 기원』. 서울: SFC 출판부, 2013.
- _____. “사실의 망각된 목소리: 르네 지라르의 기독교 변증론-해체주의철학,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와의 이론논쟁 중심으로.” 『기독교 철학』 13 (2011년 겨울호): 141-172.
- _____. “새로운 희생위기로서의 현대사회 - 르네 지라르의 현대사회에 대한 분석.” 『철학연구』 125 (2013.2): 313-344.
- _____.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넘어서 - 기독교와 불교 대화신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 -.” 『한국개혁신학』 37 (2013): 117-151.
- Chung, Ilkwaen. *Paradoxie der weltgestaltenden Weltentsagung im Buddhismus. Ein Zugang aus der Sicht der mimetischen Theorie René Girards*. Beiträge zur mimetischen Theorie 28. Münster: Lit Verlag, 2010.
- Garrels, Scott R. “Imitation, Mirror Neurons, and Mimetic Desire: Convergence Between the Mimetic Theory of René Girard and Empirical Research on Imitation.” *Contagion: Journal of Violence, Mimesis, and Culture* 12-13 (2005-2006).
- Girard, René. “Are the Gospels Mythical?.” *First Things* (April 1996).
- _____. *Celui par qui le scandale arrive*. 김진식 역. 『그를 통하여 스캔들이 왔다』.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7.
- _____. *Das Heilige und die Gewalt*. Zürich: Benziger, 1987.
- _____. *Der Sündenbock*. Zürich: Benziger, 1988.
- _____. *Hiob – ein Weg aus der Gewalt*. Zürich: Benziger, 1990.
- _____. *Les Origines de la culture*. 김진식 역. 『문화의 기원』. 서울: 기파랑, 2006.
- _____. “Nietzsche versus the Crucified.” In *The Girard Reader*, edited by James G. Williams.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6.
- _____. *Wenn all das beginnt. Ein Gespräch mit Michel Treguer*. Aus dem Französischen von Pascale Veldboer. Münster-Hamburg-London: Thaur, 1997.
- Habermas, Jürgen. “Ein Gespräch über Gott u. die Welt.” In ders. *Zeit der Übergänge*. Frankfurt: Suhrkamp Verlag, 2001.
- _____. *Nachmetaphysisches Denken II: Aufsätze und Repliken*. Berlin: Suhrkamp, 2012.

- Habermas, Jürgen & Ratzinger, Joseph. *Dialektik der Säkularisierung. Über Vernunft und Religion*. Freiburg: Herder Verlag, 2005.
- King, Winston L. *A Thousand Lives Away: Buddhism in Contemporary Burma*.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1964.
- Löffler, Winfried. “Eine Calvinistische Position zur Vernunftigkeit des Glaubens: Alvin Plantinga und die ‘Reformierte Erkenntnistheorie’” In *Letztbegründungen und Gott*, edited by E. Runggaldier u. B. Schick. Berlin u.a.: de Gruyter 2011.
- Peardey, Nancy R. & Charles B. Thaxton. *The Soul of Science: Christian Faith and Natural Philosophy*. 이신열 역. 『과학의 영혼: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과학 이야기』. 서울: SFC, 2009.
- Plantinga, Alvin. “Science and Religion: Where the Conflict Really Lies.” 박제철, 김동규 역. “과학과 종교: 갈등의 지점은 어디인가.” 『철학논집』 제19집 (2009.10): 279-307.
- Sharf, Robert H. “The Idolization of Enlightenment: On the Mummification of Ch’an Masters in Medieval China.” *History of Religions* 32/1 (1992): 1-31.
- Weber, Max.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II, Hinduismus und Buddhismus*.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66.

20세기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영미권 뿐 아니라, 유럽 대륙의 철학과 인문학에서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변증학의 르네상스가 오고 있다. 특히 21세기 초반부터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한 도킨스와 선교적 무신론의 등장으로 다시금 기독교 변증학이 다시금 중요하게 되었다. 현대철학, 곧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철학, 후기구조주의 등이 니체와 하이데거의 계보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후기기독교적 혹은 반기독교적 흐름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학자가 르네 지라르이다. 『문화의 기원』을 지라르는 해독했다. 지라르는 인문학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인문학계의 다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는 범신론이나 다신론은 끊임없이 신들을 생산하는 장치들이라고 본다. 지라르에 의하면 유대-기독교 전통의 유일신론의 신은 희생양 메커니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에 반해 다신교는 수많은 희생양의 초석에서 발생한다. 고대사회에서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마다 새로운 신이 발생되고 제작된다. 그러나 유대교는 이런 식으로 신을 생산하는 장치를 처음부터 엄격히 거부했다. 유대교에서 신은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고, 희생양도 더 이상 신격화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이른바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지라르는 말한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일 것이다. 불교의 목표인 붓다가 되는 것, 곧 성불은 기독교의 성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은폐된 희생양으로서의 붓다들은 모방하기에는 위험하고도 매우 예외적인 존재다. 파계를 최고의 단계로 보는 디오니소스적인 붓다들의 범죄행위들이 재가신자들의 교육과 모방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불교지식인들은 알고 있다. 붓다들의 깨달음의 심리학은 이후 곧바로 사리송배, 미라송배 등으로 이상화되어 버린다. 폭력적으로 성스러운 존재 붓다들의 깨달음의 이상화의 문제다. 지상의 신들로서의 붓다들의 이상 숭배적 신성화 과정을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 속에서 해독해 내었다. 붓다들의 깨달음은 포스트모던적 의미에서의 해방적 해체가 아니라, 전근대적 의미에서 이상화되었다.

주제어: 개혁주의 변증학, 르네 지라르, 문화의 기원, 붓다와 희생양, 기독교 교육

Thoughts of René Girard and Reformed Concept of Culture and Apologetics

Chung, Il Kwaen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deal with the recent renaissance of Christian philosophy and apologetics mainly in the light of René Girard's theory. René Girard was recently elected to one of only 40 members, or immortels, of the *Académie Française*, France's highest intellectual honor. He has continued to amplify his Christian apologetics in subsequent writings. He argues for Christianity's unique status among religions. When properly understood, his mimetic theory can provide the basis and framework for a Christian apologetics that remains faithful to traditional doctrine while allowing those new to the faith a unique vista for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Christianity. Christianity, for Girard, is the end of archaic religions because it reveals that the victim is innocent.

It is Girard's theory, it seems to me, that most urgently needs to be debated, now that atheist triumphalism is sweeping all nuances away. Thinkers like Dawkins and Hitchens leap at once to the conclusion that religion is the cause of this violence and sexual obsession, and that all the crimes committed in the name of religion can be seen as the definitive disproof of it. Not so, argues Girard. By submitting to violence, Christ reveals and uproots the structural matrix of all religion. Christ and Bodhisattvas are also different. The Christ, because of the scandal of particularity, must be unique while Bodhisattvas are manifold. While Christians are traditionally exhorted to be *like* Christ, Buddhists are called to be Bodhisattvas.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uniqueness of Christ and the plurality of Bodhisattvas is not to be overlooked. Unlike Christianity and Islam, the historicity of a unique founding figure is not

intrinsic in Buddhism: all Buddhas and Bodhisattvas are the same and interchangeable. The idea of a plurality of Buddhas is common.

Some Buddhists believe Jesus Christ was a bodhisattva. But the exceptional breaking and transgression of Bodhisattva in the path of initi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staged crimes and methodical transgression of taboos on the side of the reconciliatory victims. The initiatory vows of Bodhisattva involves exceptional breaking of basic moral or disciplinary precepts in order to accomplish a higher aim. These examples of exceptional licence to break the basic rules of morality in special cases of altruistic motivation is to be read from the perspective of genetic mechanism of surrogate victim.

Key Words: Reformed Apologetics, René Girard, Origins of Culture, Buddha and Scapegoat, Christian education